

## About the Exhibition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e are pleased to present this special exhibition on Japanese court culture, organized with the special assistance of the Tokyo National Museum. We have consistently held exhibitions introducing foreign court cultures, and this is the sixth such exhibition.

The Japanese court established its basic form in the 8th century and has since developed a distinctive court culture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this exhibition, we aim to expand understanding of foreign court cultures through the presentation of paintings, crafts, and court attire used in the pursuit of refined court life in Japan, along with court ceremonies and music traditions that continue to this day.

### 관람 안내

#### 전시 기간

2025.

2026.  
**12. 18.~2. 22.**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III·IV

#### 관람 시간

월·화·목·금·일요일 10:00~18:00

수·토요일 10:00~21:00

\*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 설날 당일(2.17.) 휴관

### 오는 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정류소에서  
걸어서 5~10분

#### 주차

경복궁 동편 주차장 사용(유료)

### 특별 강연

2026. 1. 20. (화) 14:00~16:00

#### 궁정의 연중행사

이노쿠마 가네키 猪熊兼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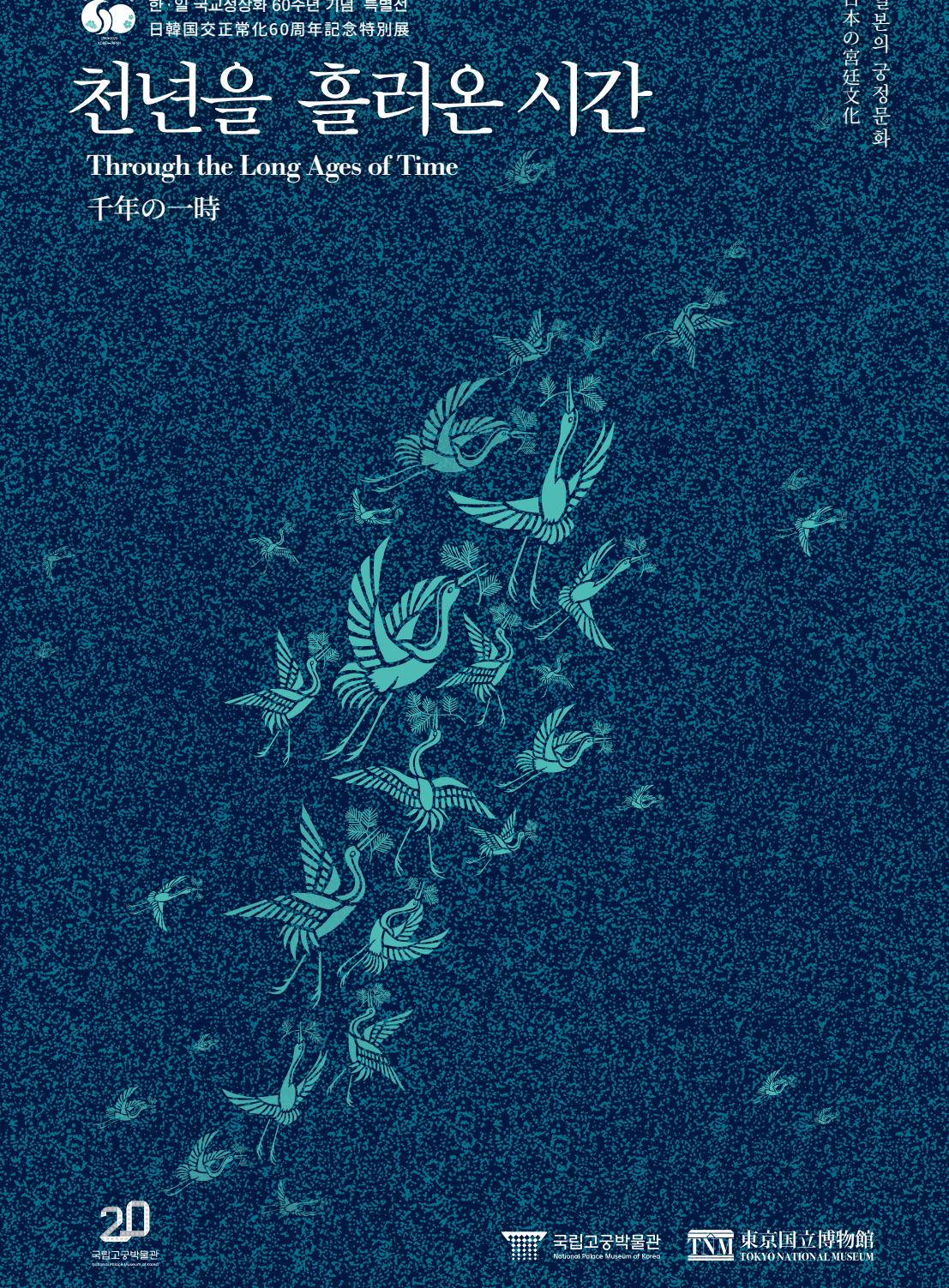
도쿄국립박물관 학예연구부 조사연구과 공예실장

2026. 2. 3. (화) 14:00~16:00

#### 세계의 왕실문화와 국립고궁박물관

박수희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학예연구관



### 전시를 열며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2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천년을 흘러온 시간'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그간 국외 왕실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꾸준히 열어 왔으며, 이번이 그 여섯 번째 전시입니다.

일본의 궁정은 8세기에 기본 양식을 갖추고 그 후 1300년에 걸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와 가까운 지리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궁정문화는 국내에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궁정 안에서의 우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했던 회화, 공예품, 복식,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궁정 의례와 음악 등을 소개합니다. 천 년이 넘는 긴 시간을 조용히 흘러온 일본의 궁정문화를 감상하면서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전시 제목은 『고친와카슈古今和歌集』의 “산길의 국화 위아이를 맛보고 만드는 사이에, 어느 새 나는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듯하구나”라는 신선의 궁전을 미리로 읊은 오카와歌에서 따온 말로, 헤이안 시대 이후 오랜 시간 지속된 일본의 궁정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일본의 궁정: 조도인 朝堂院과 다이리 内裏

일본의 궁정은 국가 의식을 거행하던 공적 공간인 조도인 朝堂院과 덴노 天皇 [천황]의 생활 공간인 다이리 内裏로 나뉜다. 중국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조도인과 달리 다이리는 일본 고유의 건축 양식인 신덴즈쿠리 寝殿造로 지어졌다. 이 공간에서는 마키에 蒔繪나 나전 螺鈿 기법으로 장식된 가구 [調度品]가 사용되었고, 의례가 진행되며 일본의 궁정문화가 발달했다.

I

# 공정의 장지문과 병풍: 겐조노쇼지 賢聖障子

다이리의 정전인 시신텐 紫宸殿은 내부가 텅 빈 공간인 선텐즈쿠리 양식으로, 중심부 공간인 모야 母屋의 주위에 히사시 廊가 연결된 형태로 지어졌다. 이 공간은 쇼지 障子 [장지문]나 병풍 屏風으로 구획되었다. 쇼지는 용도에 따라 옮길 수 있는 쇼지, 끼워 넣는 방식의 쇼지, 개폐식의 쇼지로 나뉘며 그림의 소재에 따라 중국 화풍 혹은 일본 화풍으로 꾸며졌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중국 성현을 주제로 한 〈겐조노쇼지〉이다.



## 궁정 정전을 장식한 장지문의 그림을 그린 병풍

賢聖障子  
스미요시 히로유키 住吉広行  
에도 시대 江戸時代(1603~1868), 18  
비단에 채색

## 성의 복식: 소쿠타이 東帶와 주니히토에 十二單

또는 5위 이상의 관리가 가장 격이 높은 제사인 대사大祀나 정월에는 예복礼服, 황족이나 직위가 있는 관리가 조정에 출사할 때 착용하는 사람이 조정에 출사할 때 입는 제복制服으로 구분된다. 헤이안平安이나 점차 일본 고유 양식의 건물에서 활동하기 적합한 형태로 변했다.

궁정의 중심  
행사, 계절에  
2단 수납장이  
꾸며졌다.



113

II

## 정의 실내 장식: 시쓰라이 室札

이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신덴즈쿠리 건축물로, 이 공간을 의식을 시쓰라이 室札라 한다. 좌식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그에 맞는 등의 가구가 많았으며, 일본에서 발달한 마키에나 나전 기법



궁정의 의례: 연중

궁정의 의례 중 매해 치러지는 연중행사는 일본 궁정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국에서 전해진 것도 많았지만 일본의 풍토나 계절, 민간행사나 풍습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달하였다. 막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궁정 행사가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17세기 에도 막부 이후 전란이 진정되자 점차 궁정 의례가 재개되었고 그에 관한 기록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궁정의 음악: 가가

일본의 궁정 음악인 가가쿠는 중국 당의 궁정에서 연주되던 연향악에서 유래되었다. 궁정에서는 우타료 雅樂寮를 두어 조정의 공식 행사에서 가가쿠를 연주하고 악인 樂人을 양성하게 하였다. 가가쿠는 크게 일본의 전통 악무와 외래 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궁정 무용을 주는 장면을  
그린 그림  
舞楽図巻  
가노 도순 (요시노부) 狩野洞春<義信>  
에도 시대 江戸時代(1603~1868)  
18세기  
비단에 채색